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박사과정 조영숙  
교수 이양희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Youngsuk, Cho*  
*Professor : Yanghee,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for mothers of 5- to 7-year -old preschool children. After 43 items of the preliminary scale were analyzed for their fitness of structure based on the chi-square test and Cramer's V coefficients, and 27 were selected as the final set for the questionnaire. Further factor analysis on these 27 items confirmed the selection of 26 of the 27 items with a four-factor structure : communication, teaching, general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ntrol. The internal reliability was evaluated to show a confidence level of .92 for the overall items and a range of .70 to .86 for each individual factor.

**주제어(Key Words):**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양육(parenting)

### I. 서론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사회화의 중요성(Kopp,1982; LeCuyer-Maus & Houck, 2002)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첫 사회적 환경인 가정과 부모

양육 관련 변인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Abidin, 1992; Kochanska, DeVet, Murray, & Putnam, 1994; Silverman & Ragusa, 1992),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외현적인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양육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양육의 인지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신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최근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인지적인 측면중 하나인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이다. 양육효능감은 양육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양육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수행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회인지적 관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따라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조인경, 2004; Bandura, 1989). 실제로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 상황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여러 주요 변인을 중재하는 경향(Cutrona & Troutman, 1986)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정서적,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경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반응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왔다(Coleman & Karraker, 1997;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높은 양육효능감은 구체적인 긍정적인 양육 즉, 반응적이고, 자녀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Unger & Wandersman, 1985)이 높았으며, 자녀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또한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빈도가 높은(Johnston & Mash, 1989)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양육효능감과 양육유능성을 연결한 몇몇 연구들은 엄마의 우울,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양육의 질적인 변인과 양육 행동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Bugental, Blue, & Cruzcosa, 1989;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은 양육 행동외에도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더욱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의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 및 능력(Bohlin & Hagekull, 1987), 아동의 행동적, 발달적 수준(Coleman & Karraker, 2003),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hepard, & Friedman, 1999), 과잉행동(Mash & Johnston, 1983) 등 다양한 측면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대인적응성(김현미, 도현심, 2004), 사회적 능력(문태형, 2002), 자녀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안선희, 김선영, 2004) 등과 양육효능감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연구자들은 양육효능감이 양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아동과 부모변인의 효과를 중재할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를 보고하면서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양육효능감의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양육과제와는 연관되지 않은 전반적인 유능함을 측정하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효능감과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Wells-Parker *et. al.*, 1990)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있는 환경의 질과 부모로서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1977, 1982)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자기 체계(self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기 체계는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절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 체계는 자체적인 인지 및 정서 구조를 가지고 기호화되며 차후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개인의 신념과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있어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을 사회적 정보처리자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Bandura(1986; 윤운성, 1998에서 재인용)의 상호작용적 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에 기초하는 것으로, (1) 인지, 정서, 생리적 활동으로서의 개인적 요인 (2) 행동 (3) 환경이 삼차원적인 상호상관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행동에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는 정서적인 요인 역시도 인지적 평가에 따라 경험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즉, 어떤 정서적 상황에서 정서를

유발시키는 사상은 대개 자율신경적 흥분과 인지적 평가를 일으키고, 이 흥분과 평가는 각각 지각된 흥분과 정서적 신념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후속 행동의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Atkinson, Atkinson, Smith, & Hilgard, 1987).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난 몇 십년동안 교육연구분야에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윤운성, 1998), 이를 양육의 영역로 확대 적용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은 '양육유능감 (parental competence)', '양육확신감(parental confidence)', '양육신념(parental beliefs)' 등의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개념상의 다양함은 양육효능감을 정의하는 방식에도 다소 차이를 보여 왔는데,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정의는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양육기술(먹이기, 달래기 등)에서 성공적인 경험 여부를 강조한 학자들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Bandura(1989)는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Teti와 Gelfand(1991)는 부모로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Donovan, Leavitt와 Walsh(1990)는 중요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성공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육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떼쓰기, 울기 등)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의 신념 및 판단에 관한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의 정의를 들 수 있다.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 아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로서 느끼는 유능감이라고 정의한 학자들은 특정 영역이나 과제에 한정되지 않고 부모 역할의 전반에 걸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유능성을 강조하였다(Cutrona & Troutman, 1986; Wolfson, Lacks, & Futterman, 1992). 마지막으로,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좀 더 세분화된 다차원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들 수 있다. Coleman과 Karraker(2003)는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하는 부모의 평가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정의는 '부모의 신념 및 판단(parents' belief/judgement)', 여러 상황 하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일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actions)', 아동 양육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의 과제(situation-specific tasks)' 등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Montigny & Lacharité, 2005).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모의 신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의에 포함된 개념을 평가하는 문항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Sabatelli & Waldron, 1995),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양육효능감의 평가 방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지금까지 문헌에 보고되어 왔다. 즉, 구체적인 과제에 초점을 두는 평가방법(task-specific method),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을 구체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domain-specific method), 특정 과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전반적인 양육의 유능감을 평가하는 방법(domain-general method)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방법은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측정법(domain-general method)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양육효능감을 다른 영역의 효능감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며, 특정 양육과제와 연관되지 않은 전반적인 유능성의 기대치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의 양육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16문항으로 구성된 양육유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는 양육효능감과 양육만족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이 중 양육효능감 척도에는 7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척도는 많은 후속연구(Cutrona & Troutman, 1986; Fitzgerald, Shipman, Jackson, McMahon, & Hanley, 2005; Johnston & Mash, 1989; Mash & Johnston, 1983)에서 PSOC의 하위척도인 양육효능감을 전체척도로 변환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Campis, Lyman과 Prentic-Dunn (1986)은 양육통제 척도(the Parental Locus of Control Scale)에서 척도의 한 요인으로 10문항의 양육효능감을 포함시킨 총 47문항의 척도를 보고하였으며,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은 지각된 양육유능성 척도(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

하는 양육확신감과 부모 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통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Dumka 등(1996)은 25문항의 Parenting Self-Agency Measure(PSAM)을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 지식,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유능성에 대한 지각을 단일요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에서 전체 척도중 하위 척도의 하나로 구성된 것이며, 양육의 유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방식으로 하위 척도를 전체척도로 변환하는 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비판(Coleman & Karraker, 2003)과 더불어 양육효능감에 대한 총괄적인 측정정보는 좀 더 세분화된 다각적인 측정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되었다(Bandura, Babaranelli, Caorara, & Pastorelli, 1996; Jones & Prinz, 2005).

반면에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task-specific method)은 연령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유능감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Teti와 Gelfand(1991)는 어머니의 효능감 척도(Maternal Efficacy Questionnaire: MEQ)에서 영아를 양육하는데 상황적으로 요구되는 10개의 문항(아이 달래기,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기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allenski와 Cook(1982)은 영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각기 다른 발달적 시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양육의 과제를 60문항으로 구성하여 양육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제에 의해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 즉,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타당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양육효능감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생활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한된 몇몇 특정 양육과제의 수행능력을 통한 양육효능감의 평가가 적절한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Woodruff & Cashman, 1993).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을 구체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domain-specific method)은 앞서 제시하였던 구체적인 과제 중심 측정을 좀 더 확대하여 다차원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Allen(1993)의 척도는 3~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랑(love), 통제(control), 의사소통(communication), 교육(education), 전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34문항의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Momper, 2005)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Coleman과 Karraker(2003)는 19-2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행동적, 발달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을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 양육(nurturance)·유용성(valuing)·공감적 반응(empathetic responsiveness), 보호(protection), 훈육(discipline)·제한(limit setting)·놀이(play), 교육(teaching), 도구적 양육(instrumental care)·구조화(structure)·일상생활(routines)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 53문항의 척도(SEPTI-TS) 척도를 제작하였다. Allen(1993)의 PES 척도와 Coleman과 Karraker(2003)의 SEPTI-TS 척도는 양육효능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다차원적 요인으로 나누어 과제별 측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이 초점을 두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개념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다양한 측정방식에서 어떠한 방식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Coleman과 Karraker(2003)는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SEPTI-TS; Coleman & Karraker, 2003)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양육유능성 척도(PSOC;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를 통해 두 측정치가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적인 양육효능감 척도(SEPTI-TS)가 아동의 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전반적인 양육유능성 점수(PSOC)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함에 있어 양육에 대한 단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 양육효능감보다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방식의 척도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많은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척도와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양육효능감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비교적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숙재(1997)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SOC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제작한 13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안지영(2001)은 Floyd 등(1998)의 PPC 척도를 수정하여 전반적인 양육능력을 측정하는 1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후속연구(김선희, 2005; 김은영,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에서도 활용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양육효능감을 주요한 양육의 변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대

부분이 외국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하위 영역 중의 하나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요인을 국내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개수 또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외의 척도를 번안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형성, 정옥분(2001)이 한국적 문화를 고려하여 제작한 37문항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 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 등 총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연구(문태형, 2002; 안선희, 김선영, 2004; 이승미, 김희진, 2005; 홍경자, 안혜영, 김혜원, 2004)에서 활용되었다.

한국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척도가 국내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나 최형성, 정옥분(2001)의 척도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왕성하게 보이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이나 과외 활동, 학교와 관련된 항목들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과업을 고려한 측정을 학령기 이전의 아동에게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충동적 경향이 있고 다양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의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좌절을 경험하기 쉬우며, 점차 자의식이 증가하고 사회화가 시작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서와 행동의 자율적인 조절이 시작되는 시기이다(정은주, 2005; Granlinski & Kopp, 1993).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양육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모의 신념(Allen, 1993; Bandura, 1982; Coleman & Karraker, 2003)이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발달 수준 및 요구되는 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은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국외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eti와 Gelfand(1991)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MEQ)을 측정하였고, Coleman과 Karraker(2003)는 걸음마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요인적 양육효능감 척도(SEPTI-TS)을 측정하였으며, 향후 유아기 아동을 포함한 척도의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Allen(1993)은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다요인적 양육효능감척도(PES)를 개발하여 보고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유치원의 공교육화로 만 3~5세를 초

등학교 이전의 학교단위로 묶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초등학교 입학이후에도 유치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일관성이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은 법적으로는 유아를 위한 학교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와는 학제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 유치원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실정(문미옥, 2006)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모 양육에서의 부담과 책임이 외국의 사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당 연령에 적절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와서 성역할 개념의 변화, 취업모 증가에 따른 양육문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유아의 양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머니가 결정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Bohlin & Hagekull, 1987)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취학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양육효능감 측정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다양한 양육관련 변인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서울시내 3개구의 어린이집과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 6, 7세 아동(만3~5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530명이 편의 표집 되었으나, 이 중 338명(64%)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중 질문에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해당 연령에 속하지 않은 38부를 제외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 아동은 생활연령 5, 6, 7 세에 해당하며, 전체 아동의 평균연령은 6.02세였고, 각 연령별로 35.0%, 28.8%, 36.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성별 역시 남녀 아동 각각 50.9%, 49.1%를 차지하여 균등한 성별분포를 보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전체 80%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아버지의 경우 60.9%, 어머니는 48.1%였으며, 경제적 수준에서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징 (N=320)

변인	평균	빈도	비율	
아동연령	5세(만3세)	112	35.0	
	6세(만4세)	92	28.8	
	7세(만5세)	116	36.3	
아동성별	남(빈도/비율)			
	5세(만3세)	54(33.1)	57(36.3)	111(34.7)
	6세(만4세)	49(30.1)	43(27.4)	92(28.8)
	7세(만5세)	60(36.8)	57(36.3)	117(36.6)
	총계	163(50.9)	157(49.1)	
형제수	1명	74	23.1	
	2명	206	64.4	
	3명이상	40	12.5	
	총표본수	320명	100%	

〈표 2〉 연구대상 양육자 특성 (N=320)

변인	구분	부		모	
		빈도	%	빈도	%
부모연령	25세 이하	1	0.3	1	0.3
	25~30세	6	1.9	26	8.1
	31~35세	86	26.9	167	52.2
	36~40세	168	52.5	101	31.6
	41~45세	44	13.8	23	7.2
	46세 이상	15	4.7	2	0.6
부모 교육 수준	초등졸	1	0.3	0	0
	중 졸	5	1.6	3	0.9
	고 졸	89	27.8	118	36.9
	초대졸	30	9.4	42	13.1
	대 졸	147	45.9	136	42.5
	대학원이상	48	15.0	21	6.6
부모 직업	무직/주부	4	1.3	156	48.8
	생산·노무자	26	8.1	4	1.3
	판매·서비스	66	20.6	26	8.1
	사무직	180	56.3	92	28.8
	관리직	4	1.3	1	0.3
	전문직	27	8.4	34	10.6
	기타	13	4.1	7	2.2
수입		빈도	백분율(%)		
	100만원 미만	7	2.2		
	100-199만원	65	20.3		
	200-299만원	74	23.1		
	300-399만원	67	20.9		
	400-499만원	58	18.1		
500만원 이상	49	15.3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 (1) 문항의 수집 및 척도의 구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구성을 위한 문항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는 방법(domain-specific method)을 따랐으며, Allen(1993)이 제시하였던 사랑(love), 통제(control), 의사소통(communication), 교육(Teaching), 일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의 5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Allen(1993)은 다요인적 접근에 따라 양육효능감을 구성하였으며, 그 대상이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 연령을 포함하였고 타 연구(Dorsey et. al., 1999 ; Momper, 2005)를 통해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로 삼았다. 척도의 평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하였는데, 기존의 척도를 살펴보면 중앙치를 피하기 위하여 짝수척도로 측정된 연구들(Coleman & Karraker, 2003;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Teti & Gelfand, 1991)이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는 홀수척도를 사용한 연구(신숙재, 1997; 조인경, 2004; 최형성, 정옥분, 2001; Allen, 1993; Ballenski & Cook, 1982; Campis et. al., 1986; Wells-Parker et. al., 1990)들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평정척도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제작시 근거로 삼은 Allen(1993)의 5점 Likert 척도 방식을 수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구성한 5개 범주를 살펴보면, 사랑(love)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아이가 느끼도록 전달하는 능력(예, 나는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에게 잘 표현한다), 통제(control)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조절과 갈등상황에서의 해결능력(예,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예,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교육(teaching)은 양육에 관한 지식 및 효과적인 지도능력(예,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은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느낌(예,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한다)을 각각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을 위하여 이 외에도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문헌들(신숙재, 1997; 조인경, 2004; 최형성, 정옥분, 2001; Coleman & Karraker, 2003;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을 검토하여 1차 문항을 구성하였다.

## (2) 척도의 개발 과정

연구자가 제작하여 초기 선별과정을 거친 문항을 대상으로 이 문항이 양육효능감 검사를 위해 얼마나 전형적이고 타당한 문항들인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2단계의 내용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1차 단계로 103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아동학 전공 박사 및 박사과정 3인으로부터 적합성의 여부를 검증한 후 유사한 의미이거나 의미상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차 단계에서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과 현직 교수 7명, 아동학 및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및 수료자 12명, 유아교육과 석사학위 취득 후 보육시설 시설장 경력 10년 이상인 자 2명 등 총 21인을 대상으로 측정문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2차 수정문항은 사랑(love) 17문항, 통제(control) 24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 17문항, 교육(teaching) 16문항, 전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 21문항으로 총 95문항이었으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문가가 평정한 문항별 평균점수가 4.0이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된 문항만을 선별하였다.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랑(love) 문항 중 13문항(예, 나는 내 아이가 언제 힘들어 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내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매우 견디기 힘들다 등)이 제외되어 4문항이 추출되었으며, 통제(control) 문항은 16문항(예, 나는 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제한을 하는 방법을 안다, 나는 내 아이가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게 하기가 어렵다 등)이 제외되어 8문항, 교육(teaching)문항은 8문항(예, 내 아이에게 학습을 시키는 일은 내가 잘하는 것 중 하나이다. 책임이나 다른 일 대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앉아 있게 하기가 어렵다)이 제외되어 8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문항은 4문항(예,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나는 아이가 화나는 일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등)이 제외되어 13문항, 전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 9문항(예,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빠지게 한다 등)이 제외되어 12문항으로 구성된 총 45문항이 선정되었다. 문항의 선정결과 추출된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평정척도를 기준으로 4.09~4.71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평정을 통해 선정된 문항으로 해당 연령 어머니 15인을 대상으로 추가 문항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존의 척도에서 포함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새로운 문항의 포함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구성된 질문지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개별 개방 질문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문항, 기존의 척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면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문항 등을 첨삭하여 총 43문항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2) 지각된 양육유능성 척도(PPC)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loyd 등 (1998)의 '지각된 양육 유능성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PC)' 척도를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에 맞게 수정한 안지영(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Floyd 등(1998)의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Parenting Confidence Scale' 15 문항과 부모 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Under Control Scale'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지영(2001)은 이 중에서 연구의 대상 연령을 취학 전 연령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총 15 문항의 단일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의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응답내용이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문항 전체 신뢰도는  $\alpha = .73$  이었다.

안지영(2001)의 PPC척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이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대상 연령층이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김선희, 2005; 김은영,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에서 활용도가 높았으며, 특정 연령에 한정되는 문항이 없는 척도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공인타당도를 위한 준거 척도로 선택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에 걸쳐 본 연구의 대상 연령에 속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 문항의 이해도를 평가하였으며, 일대일 개방형 질문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내 아이를 바람

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때는 주로 어느 경우입니까?',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1인당 평균 2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안면타당도를 통해 추출된 문항중 의미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문항과 기존의 문항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문항 등을 침삭하여 최종 43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 질문지가 작성되었으며, 예비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어머니들은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6년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에 걸쳐 서울시내 3개구의 어린이집과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 6, 7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설문이 이루어진 2주 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차 설문에 응했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에 걸쳐 수행되었다. 총 30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1차 설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답변에 누락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한 총 140부가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rogram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시의 내적합치도,  $\chi^2$ 검증 및 Cramer's V계수를 통한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응답의 편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문으로 기술된 6개의 문항(4번, 13번, 27번, 29번, 30번, 39번, 41번)은 역코딩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대개 주성분모형(Principle Component Model)과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이 있다. 이순목(2000: 28-29)에 따르면 주성분 모형은 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 자료를 축소를 위한 목적일 경우 적절하며, 변수들간의 상관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면 공통요인 모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통요인분석의 주축분해(Principle Axis Facto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행렬의 요인 변량을 최대화 되도록 요인축을 회전시켜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한 방법인 직각회전 방법(Varimax)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구성된 최종 문항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문항양호도

문항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제거후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총 43개의 문항 분석결과 평균이 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 5개(4.0이상, 2.0이하), 문항-전체의 상관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항 2개(.20이하)를 제거하였다. 또한 응답분포를 토대로 전체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25%와 하위 25% 두 집단 간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s V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일반적인 수용수준인 .25에 못 미치는 문항 1개를 뺀 모든 문항들은 Cramer's V 계수를 통한 문항변별도의 일반적인 수용수준인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항변별과정을 거쳐 제거된 8개의 문항(4번, 12번, 13번, 14번, 15번, 36번, 38번, 39번)을 제외한 35문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항변별과정에서 타문항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평균 4.0이상)를 나타낸 문항은 모두 사랑(love)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으며, 반대로 극단적으로 낮거나 전체 문항과 현저하게 상관이 떨어지는 문항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첨가된 통제(control)에 속하는 문항으로 아동에게 처벌을 사용하거나 아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다.

### 2. 척도의 타당도 검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척도와의 상관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인타당도를 알아보았다.

#### 1) 구성타당도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 측도를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KMO 수치는 문항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요인 분석의 의미는 높아지며 최소한 0.5이하로는 되지 않아야 한다(허만형, 2001:528). 35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KMO 측도값은 .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sphericity)는 3445.00 ( $df=351$ )이었고, 유의수준이 .000이므로 요인분석에서 유의미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 양호도

문항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전체 상관	제거후 내적 합치도	$\chi^2$	변별도 (V계수)
1.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긴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3.78	.859	.616	.938	96.59***	.775
2.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3.15	1.164	.506	.939	66.23***	.641
3.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다.	3.65	.909	.636	.938	103.11***	.800
4. 나는 내 아이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할 때도 잘 이해하고 참는다.	2.43	1.002	.187	.942	19.59***	.349
5.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3.91	.816	.513	.939	65.62***	.638
6.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3.92	.780	.578	.939	80.45***	.707
7. 나는 내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벌을 주고받는다.	3.27	.955	.540	.939	68.22***	.651
8. 나는 내 아이에게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 잘 가르친다고 느낀다.	3.79	.837	.552	.939	70.51***	.662
9.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12	.871	.526	.939	68.96***	.654
10. 나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3.55	.858	.524	.939	68.10***	.650
11.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3.41	.826	.642	.938	92.05***	.756
1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4.04	.801	.540	.939	87.41***	.737
13. 때로 아이를 소홀히 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2.45	1.138	.052	.943	6.13	.195
14. 내 아이는 내가 자신을 매우 사랑한다고 느낀다.	4.41	.895	.449	.939	72.87***	.673
15.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4.30	.797	.449	.939	66.42***	.642
16. 나는 아이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	3.28	.827	.550	.939	84.00***	.722
17. 나는 일관된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도한다.	3.27	.870	.531	.939	72.96***	.673
18. 내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3.40	.893	.461	.939	67.03***	.645
19. 나는 아이의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3.63	.817	.608	.938	76.31***	.688
20. 나는 아이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3.43	.801	.574	.939	76.50***	.689
21.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69	.849	.577	.938	88.82***	.743
22.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3.92	.805	.663	.938	105.16***	.808
23. 나는 내 아이와 아이의 발달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	3.74	.828	.606	.938	86.16***	.732
24.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3.85	.788	.629	.938	88.08***	.740
25. 나는 피곤할 때에도 내 아이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3.27	.865	.476	.939	56.60***	.593
26.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3.76	.823	.554	.939	79.82***	.704
27.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	3.44	.963	.431	.940	67.48***	.647
28.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3.23	.813	.665	.938	103.53***	.802
29.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한다.	2.96	.929	.474	.939	58.62***	.603
30. 나는 내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3.49	1.038	.402	.940	55.26***	.586
31.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20	.759	.649	.938	100.70***	.791
32. 나는 부모로서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에 잘 대처한다.	3.14	.806	.472	.939	58.15***	.601
33.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3.40	.805	.677	.938	124.05***	.878
34. 나는 내 아이를 잘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3.32	.835	.705	.938	110.85***	.830
35. 나는 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도록 충분히 자유를 준다.	3.55	.889	.544	.939	68.04***	.650
36. 나는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에게 잘 표현한다.	4.18	.889	.539	.939	95.79***	.771
37.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노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고 느낀다.	3.59	.856	.579	.938	83.04***	.718
38. 나는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4.16	.862	.472	.939	72.70***	.672
39. 나는 아이를 체벌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다.	2.53	1.171	.200	.942	16.34**	.319
40.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 왔다.	3.33	.897	.464	.939	53.84***	.578
41.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3.86	.994	.364	.940	61.28***	.617
42.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3.31	.836	.577	.938	78.43***	.698
43. 나는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3.54	.837	.427	.940	55.76***	.588

\*\*p<.005 \*\*\*p<.001

〈표 4〉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사랑	4, 14, 36, 38	4
통제	1, 3, 7, 27, 30, 33, 39, 41, 43	9
교육	8, 9, 11, 17, 18, 20, 37, 40	8
일반적 효능감	2, 12, 13, 15, 23, 28, 29, 31, 32, 34, 35, 42	12
의사소통	5, 6, 10, 16, 19, 21, 22, 24, 25, 26	10
전체		43

또한 앞서 문항양호도를 통해 변별된 35개의 문항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의 수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 scree검사와 누적 분산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요인행렬의 요인 변량을 최대화되도록 요인축을 회전시켜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한 방법인 직각회전 방법 (Varimax)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7개가 나왔으나 검사 제작시 5요인으로 제작이 되었고, 문항양호도 분석결과 사랑 (love)에 해당하는 문항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하였다. 3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5%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1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은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1의 문항중 타요인과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거나(23번) 유사한 정도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 설명하기 곤란한 항목(10번)등 총 2개 항목을 제거하였다. 또한 43번 문항의 경우 수학적으로는 의미있는 결과로 추출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동의 행동통제와 관련된 타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이었다. 한 요인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것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이순목, 2000: 85), 이렇듯 해당 요인내에서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항인 경우 제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Gorsuch, 1983: 206)는 것에 근거하여 43번 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여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5.1%를 설명하는 것으로 10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은 양육에 대한 지식,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지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지도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육(teaching)'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의 문항중 타 요인과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7번)을 제거하였으며, 37번과 18번 문항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조사 과정에서 문항이해도가 더 낮게 평가된 문항(37항)을 제거하여 총 8개의 문항이 추출되었

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9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9개의 문항은 부모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상황이나 느낌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반적 양육효능감 (general parenting efficacy)'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의 문항중 타요인과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 2개(31번, 33번)와 유사한 정도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 1개(16번)를 추가로 제거하여 총 6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 4는 전체 변량의 4%를 설명하는 것으로 4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적인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능력과 관련되어 '통제(control)'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는 35개의 문항은 1차 요인 분석결과 8개의 문항이 제거되어 총 27문항이 추출되었으며, 탈락된 문항을 제거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에서 타요인과 유사한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35번) 1개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요인분석에서 나온 구성 문항을 토대로 총점과 하위 요인별 총점과의 상관 및 요인간의 상관을 계수로 나타내는 본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하위 척도와 총점과는 .76에서 .85의 상관을 보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상관역시 모든 척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공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제작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Floyd 등(1998)의 '지각된 양육유능성 척도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영유아기 자녀의 연

〈표 6〉 양육효능감 척도 요인간 상관 및 총점과 하위 요인간의 상관

하위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총점
요인 1	1.00				.85**
요인 2	.59**	1.00			.85**
요인 3	.57**	.66**	1.00		.84**
요인 4	.54**	.54**	.58**	1.00	.76**

\*\*Pearson 상관계수  $p < .01$

〈표 7〉 양육효능감 척도와 외적관련 변인과의 상관

(N=140)

	하위요인	PPC
양육효능감 척도	1요인	.63**
	2요인	.65**
	3요인	.70**
	4요인	.65**
	총점수	.77**

\*\*Pearson 상관계수  $p < .01$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변인 및 문항	요인				h <sup>2</sup>
	1	2	3	4	
22.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72	.23	.09	.32	.69
24.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59	.19	.27	.20	.49
26.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59	.23	.11	.19	.44
21.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58	.13	.26	.22	.47
19. 나는 아이의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58	.20	.33	.06	.48
25. 나는 피곤할 때에도 내 아이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49	.11	.28	.07	.36
23. 나는 내 아이와 아이의 발달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 <sup>a</sup>	.46	.43	.09	.23	.46
6.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45	.30	.13	.32	.42
5.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44	.24	.06	.31	.35
10. 나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sup>a</sup>	.38	.22	.35	.11	.32
43. 나는 아이가 집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sup>b</sup>	.31	.24	.10	.20	.21
11.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22	.63	.31	.17	.56
9.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3	.56	.23	.20	.43
8. 나는 내 아이에게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 잘 가르친다고 느낀다.	.25	.54	.12	.19	.41
40.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13	.47	.30	-.04	.39
20. 나는 아이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37	.45	.23	.09	.40
37.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노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고 느낀다. <sup>c</sup>	.20	.45	.26	.29	.39
7. 나는 내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벌을 주고 지도한다.	.27	.45	.28	.11	.41
42.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다. <sup>a</sup>	.13	.44	.29	.40	.45
17. 나는 일관된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도한다.	.30	.41	.25	.10	.33
18. 내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24	.38	.07	.25	.27
29.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sup>b</sup>	.20	.16	.60	.01	.43
32. 나는 부모로서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에 잘 대처한다.	.13	.16	.59	.14	.41
28.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24	.28	.56	.34	.57
31.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sup>a</sup>	.13	.43	.53	.26	.56
33.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sup>a</sup>	.30	.20	.51	.42	.56
34. 나는 내 아이를 잘 지도할 능력이 이다고 느낀다.	.22	.35	.50	.31	.59
2.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13	.21	.45	.29	.35
35. 나는 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도록 충분히 자유를 준다.	.37	.17	.44	.15	.37
16. 나는 아이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 <sup>a</sup>	.37	.29	.38	.09	.37
27.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 하는 것이 어렵다. <sup>b</sup>	.14	.17	.09	.54	.34
30. 나는 내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sup>b</sup>	.25	.04	.10	.49	.31
1.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긴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29	.24	.32	.47	.46
41.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sup>b</sup>	.09	.10	.10	.47	.25
3.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다.	.36	.36	.22	.40	.47
고유값	12.26	1.79	1.54	1.39	
분산율(%)	35.03	5.11	4.40	3.98	
누적분산율(%)	35.03	40.14	44.54	48.53	

<sup>a</sup> 두 개 요인에 걸쳐 근사한 요인 부하량을 보여 탈락한 문항

<sup>b</sup> 이론적 설명력이 떨어져 탈락한 문항

<sup>c</sup> 같은 요인내 동일한 내용이 있어 탈락한 문항

<sup>d</sup> 역채점 문항

〈표 8〉 양육효능감 척도의 요인별 내적합치도

변인	Cronbach's
전체척도	.92
요인1	.86
요인2	.82
요인3	.79
요인4	.70

령에 맞게 수정한 안지영(2001)의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와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양육효능감 척도와 안지영(2001)의 PPC 척도와 총 점수 상관은 .77(N=140)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영(2001)의 PPC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두 척도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양육효능감 척도의 모든 요인이 안지영(2001)의 PPC 척도와 .63에서 .70에 이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제작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전체 및 하위 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육효능감 26개 문항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제 1요인으로 추출된 8개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6이었고, 제 2요인으로 추출된 8개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2였으며, 제 3요인으로 추출된 5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 4요인으로 추출된 5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0으로 나타나 각 요인내 문항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 IV .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척도들은 외국에서 사용되었던 척도의 일부분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전체 척도로 변환하여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거나, 일부는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작되어 학령기 이전의 연령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세에서 7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발생

하는 연구과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연령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보다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총 43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문항제거후 내적합치도,  $\chi^2$ 검증, 문항양호도를 산출한 결과 35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문항의 변별도계수(V)는 .58~.87 사이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항양호도를 통해 변별된 문항의 하위 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총 26개 문항이 최종 요인분석에 포함되었다. 4개 요인은 각각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효능감, 통제라 명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척도 개발시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Allen(1993)의 척도와 유사한 결과이다. Allen(1993)의 척도 및 기존의 보고된 척도들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Allen(1993)의 측정도구에 포함되었던 '사랑' 요인은 문항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 척도를 개발한 최형성, 정옥분(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랑' 요인으로 포함된 문항인 경우 타 요인에 비해 높은 점수에 편중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모성애적인 평가가 외국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첫 번째 요인인 '의사소통' 요인의 내용구성은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기 등의 측면에서는 Allen(1993)의 척도와 유사하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보다 강조되었다. '의사소통' 요인 문항중 갈등 상황에서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측정법(domain-general method)을 사용한 척도들(Campis et. al., 1986; Dumka et. al., 1996;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에서도 포함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domain-specific method)을 적용한 Coleman과 Karraker (2003)의 척도에서는 훈육(discipline)의 요인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교육' 요인은 어머니의 지도 능력에 관한 측면을 살펴본 것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의 지도, 양육에 대한 지식, 지적 호기심의 자극, 올바른 훈육의 방법, 지도의 일관성이 포함된 것이다. Allen(1993)의 척도에서 광범위한 측면에서 자녀를 잘 지도할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한 반면, 본 척도에서는 부모의 자녀 지도 능력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부적인 상황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아동을 지도하는가에 대한 사항이 첨가되었다. 이 요인은 어떠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는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양육효능감 측정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며, 특히 Coleman과 Karraker (2003)의 척도에서는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세 번째 '전반적 효능감'은 대부분의 양육효능감 척도에서 포함된 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 요인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제한, 규칙의 설정,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포함한 것이다. Allen(1993)의 척도에서는 행동에 대한 제한(limit)과 효과적인 훈육 및 벌의 사용, 상황에 따른 제한(limit)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척도는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능력,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처음에 의도한 것보다는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아동의 부적인 행동 측면을 묻는 질문에 대한 부모의 평정이 매우 극단적이어서 문항양호도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탈락되었으며, 전문가에 따라 상이한 평정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았다. 통제 요인에 포함된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제한(limit)에 관한 측면은 일부 척도(Ballenski & Cook, 1982; Coleman & Karraker, 2003)에는 포함된 반면, 다른 척도에서는 제한보다는 아동에 대한 통제능력의 정도를 측정(Floyd et. al., 1998)하거나 갈등상황에서의 조절 능력(Campis et. al, 1986)을 측정하는 등의 방식을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본 척도는 요인의 전체적인 설명 변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Allen(1993)의 척도에서는 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효능감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효능감, 통제의 순으로 설명 변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작된 척도는 Allen(1993)의 척도와 요인의 구성면에서는 유사한 반면 문항의 구성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적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척도와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안지영(2001)의 PPC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안지영(2001)의 PPC 척도는 Floyd 등 (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의 척도를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에 맞게 수정한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척도라는 제한점이 있으나, 아직까지 학령전 아동에게 맞는 다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준거타당도를 위한 비교 척도로 선택한 것이었다.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매우 양호하며, 척도 전체 총점과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통해 알아본 요인타당도 역시 .76에서 .85수준의 높은 상관을 보여 준거타당도와

요인타당도가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영역에 어떠한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llen(1993)의 5요인에는 사랑, 의사소통, 통제, 교육, 전반적 효능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 역시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 평가에 따라 정서적인 부호화가 달라지며 이것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요인 역시도 인지적 평가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Coleman과 Karraker(2003)는 구체적인 양육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아동의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구조화 및 훈육능력, 아동의 신체 건강 유지 등의 범주와 관련된 유능성 영역의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측정을 하는 방법에서는 아동의 정서, 인지(교육), 행동(사회성) 등의 영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거나 제안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적절성이 입증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효능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 요인의 신뢰도 역시 .70~.86까지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동질적이며,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계수는 .30이하이면 항목 사이의 결집력이 약하고, .70이상이면 항목 사이의 결집력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지만(허만형, 2001: 540), 내적합치도 계수가 높다고 해서 검사 문항들이 반드시 하나의 차원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탁진국, 2007: 112)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수는 문항간 공변량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문항간 공변량이 크다는 말은 하나 이상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즉, 하나의 요인만이 존재할 경우 응답자의 각 문항에 대한 값은 일정하게 되므로 문항간 공변량은 낮아진다는 것이다(탁진국, 2007: 11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의 4개 요인은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모두 .70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요인별 설명 변량에서 1요인이 35%의 설명력을 가진 것에 비해 나머지 세 변인의 설명력이 5.11%, 4.40%, 3.98%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유의하게 입증 가능하였으나 이론적으로는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들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어느정도의 요인간 상관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는 보다 정교화된 문항의 분류 및 내용타당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를 검증함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정 점수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강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신뢰로운 측정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는 취학전 연령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다요인적 양육효능감 척도가 부재한 이유로 일반적인 양육효능감의 범주에 속하는 양육효능감 척도를 준거 척도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구들과의 공인타당도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비교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양육효능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서소정, 2004),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과도 밀접한 상관성(Raikes & Thompson, 2005)을 보인다는 선행 결과로 미루어 볼때 이러한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애초에 연구자가 의도하였던 '사랑(love)' 요인이 문항변별 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본 연구에는 제작 문항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2차에 걸쳐 평가하였으나 이것은 전체 양육효능감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문항에 대한 하위척도의 반영도를 평정하지는 못하였다. 내용타당도는 검사의 제작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을뿐 아니라 몇몇 연구자들 가운데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 방법들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문항에 대한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탁진국, 2007: 157).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국내에 보고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내용타당도의 과정이 소수의 평가자에 의한 전체 문항도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형태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검사문항의 영역별 적합성과 하위 척도의 반영도를 평정하는 방식의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내용타당도 분석을 보고한 연구사례(김양희, 정경아, 2000)를 참고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주된 양육 책임자인 어머니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 들어서면서 점차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까지 포함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고려하였다면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몇 가지의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취학전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그와 관련된 변인들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나 발달에 위험성이 있는 아동들을 중재할 수 있는 부모훈련 프로그램 등의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김선희(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은영 (200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훈육 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문미옥 (2006).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관련 학제 개편 방향. *유아교육연구*, 26(5), 5-33.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1-17.
- 서소정 (2004). 양육효능감 :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12), 219-230.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운성 (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의 분석적 고찰. *교육학연구*, 36(3), 65-82.
- 이순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승미, 김희진.(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 (1), 17-33.

- 정은주 (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인경 (2004). 어머니의 인식, 양육효능감, 유아의 인지능력, 공유하는 정서와 어머니의 유관조절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탁진국 (2007).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만형 (2001).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 홍경자, 안혜영, 김혜원 (2004). 부모의 양육효능감, 체벌지도가 학령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0(4), 479-487.
- Abidin, R. 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Allen, C. (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Atkinson, R. L., Atkinson, R. C., Smith, E. E., & Hilgard, E. R. (1987). Introduction to psychology. 홍대식 역(1991). 심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 Ballenski, C. B., & Cook, A. S. (1982).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e in managing selected parenting tasks, *Family Relations*, 31(4), 489-49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729-735.
- Bandura, A., Babaranelli, C., Cao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on academic function.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ohlin, G., & Hagekull, B. (1987). "Good mothering" : Maternal attitude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 352-363.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Campis, L. K., Lyman, R. D., & Prentic-Dunn, S. (1986). The parental locus of control scale :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5, 260-267.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 (1990). Maternal self-efficacy : Illusory control and its effect on susceptibility to learned helplessness. *Child Development*, 61, 1638-1647.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4-442.
- Fitzgerald, M. M., Shipman, K. L., Jackson, J. L., McMahon, R. J., & Hanley, H. M. (2005). Perceptions of parenting versus parent-child interactions among incest survivors. *Child Abuse and Neglect*, 29, 661-681.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 Gran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 rules for behavior :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9(3), 573-584.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 (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5, 423-437.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Kochanska, G., DeVet, K., Murray, K., & Putnam, S. P. (1994). Maternal reports of conscience development and temperament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5), 852-868.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eCuyer-Maus, E. A., & Houck, G. M. (2002).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a limit-setting contex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7(3), 184-203.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o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Momper, S. L. (2005). Maternal gambling, parenting in the home environment, and child outcomes in native American famili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 Montigny, C., & Lacharité,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 Sabatelli, R. M., & Waldon, R. J. (1995). Measurement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experiences of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4), 969-980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2).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the early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415-435.
- Teti, D. M., & Gelfand, D. H.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5).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others: action research contributions to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1, 29-45.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S. (1990). Development of control of outcomes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e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64-575.
- Wolfson, A., Lacks, P., & Futterman, A. (1992). Effects of parent training on infant sleeping, parents' stress, and perceived parental compet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1), 41-48.
- Woodruff, S., & Cashman, J. F. (1993). Task, domain, and general self-efficacy : A reexamin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72, 423-432.

(2007년 3월 7일 접수, 2007년 4월 2일 채택)